

나주배 이미지 먹칠한 조합장

또 한파... 눈 평평

불량배 수출금지 결의 어기고 미국에 몰래 수출

병해충 적발로 거부 당하자 재포장해 대만으로

나주배조합이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착색 방지'를 사용해 생산한 배의 수출을 금지한 상황에서 이를 감독해야 할 현재 조합장이 자신의 배만을 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다.

특히 이모 조합장이 배를 수출한 시기는 국내 배 가격이 폭락해 일반 농가의 경우는 판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조합장이 자신의 이익만 쫓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나주배조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조합 이사회에서 농가들이 착색봉지를 사용해 생산한 배는 일체 수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착색봉지

는 배가 잘익은 것처럼 황금빛 색깔을 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품질이 떨어져 '나주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 나주시나 배조합 등이 농가에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합장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미국 하와이로 15kg 기준 387박스를 수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는 과잉생산으로 국내 배 가격이 폭락, 생산비도 건질 수 없게 된 농민이 비판 자살하고 정부 수매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등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

특히 이 조합장은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한 또다른 불량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적발돼 수출을 거부당한 불량배를 다시 재포장해 대만으로 수출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경우 5kg 기준 660여박스를 수출했던 것으로 확인돼 조합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배조합 송모 이사는 "배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이 시름을 앓고 있던 시기에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채 자신이 생산한 배를 수출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을 느껴 3명의 이사가 20일 현재 자진 사퇴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주배조합 이모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수출을 거부해 직접 수출하게 된 것이다"며 "해의 수출망을 확보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으며 급전적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부취재본부 최승렬기자 srchoi@

광주·전남 내일까지 최대 5cm

22일 광주·전남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으며, 기온이 푹 떨어져 종일 쌀쌀하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광주·전남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릴 것"이라고 21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특히 22일 밤부터 23일까지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폭설에 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틀간 예상되는 눈의 양은 1~5cm로, 기상청은 곳에 따라 이보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하 3도로 전날보다 낮아 춥겠다. 기상청은 휴일인 24일 낮부터 추위가 다소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풍랑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오전에 2.0~4.0m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는 1.5~3.0m로 점차 낮아지겠다. 여수 등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황사, 이젠 계절 안 가린다

지난해 10차례...봄 4·가을 3·겨울 3회 발생

'봄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황사가 지난해에는 제 이름을 뒤흔쳤다.

기상청이 21일 발간한 '2009년 황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황사 관측일은 7.7일로 평년(1973~2000년)의 3.8일보다 많은 양이었으나 최근 10년(1999~2008년) 평균인 9.2일보다는 적었다. 지난해 발생한 10차례의 황사를 계절별로 보면 봄(3~5월)에 4회, 가을(9~11월)과 겨울(12~2월)에 3회씩 나타났다.

특히 불청객 황사 관측일수는 2.5일로 평년의 3.6일보다 적었고 최근 10년 평균인 7.5일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황사가 7차례 관측됐으며, 이 가운데 봄에 발생한 것은 단 2차례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보다 0.5일 적은 것이다.

광주에서 황사가 관측된 것은 2월 20일, 3월 16~17일, 10월 19일, 12월 25~26, 30일이다. 기상 관측소가 있는 목포와 여수, 완도, 순천도 광주와 같은 날 황사가 관측됐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의 발원지는 몽골과 내몽골이 7회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만주 지역이 3회로 나타났다. 황사 강도는 겨울철에 발생한 2회의 황사는 '매우 짙음'(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 800 μ g/m³ 이상), 봄철에 나타난 1회의 황사는 '짙음'(400~800 μ g/m³)으로 측정됐으며 나머지는 '얼음'(400 μ g/m³ 미만)이었다. 지난해는 황사에 관한 각종 기록도 세워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학 재정지원 때 취업률 반영"

이주호 교과부 1차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에 재정 지원 시 취업률 성과를 반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과천시에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대학졸업자 전체에 대한 취업 여부를 산출해 대학의 취업률 관련 정보 공시를 내실화하고 대학 재정 지원 시 취업률 등 교육 성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학 교수 인사에 있어서 성과연봉제 및 총액인건비제를 시험 운영하고 산업계 인사를 초빙한 강좌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3월 개교하는 21개 마이스터 고교들을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선도모델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여건이 미흡한 전문계고, 종합고 등은 학교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일반계고로 전환 또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존 전문계고는 모두 특수화고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밀양서 신종플루 예방백신

100명 분을 10명에 주사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100명분의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10명에게 주사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부작용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21일 밀양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밀양시내 한 병원에서 병원 측의 실수로 김모(60) 씨 등 10명에게 정량의 10배에 이르는 100명 분량의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주사했다.

병원 측은 즉시 18일 오후 예방백신을 맞은 10명 모두를 입원시키고 48시간이 지난 후 부작용 증세가 없자 20일 오후 늦게까지 9명을 퇴원토록 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8분
해질 17시 50분
달돋이 10시 46분
달짐 -시-본

또 눈

흐리고 눈이 내리겠으며 바다의 물결이 높겠다.

지역	구름	최저	최고
광주	구름 많음	-5/2℃	
목포	흐리고 한때 눈	-2/2℃	
여수	맑음	-2/2℃	
완도	구름 많음	-2/2℃	
구례	구름 많음	-5/2℃	
해남	흐리고 한때 눈	-3/2℃	
장흥	구름 많음	-3/2℃	
고흥	맑음	-2/2℃	
순천	맑음	-2/3℃	
영광	흐리고 한때 눈	-5/1℃	
진도	흐리고 한때 눈	-2/2℃	
전주	구름 많음	-6/1℃	
남원	구름 많음	-8/0℃	
옥산도	흐리고 한때 눈	0/2℃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바다	풍향	파고	일출	일몰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목포 06:07	11:18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여수 00:46	06:34

◇주간날씨

날짜	날씨	최저/최고
23(토)	☁	-5/3
24(일)	☀	-5/6
25(월)	☀	-2/5
26(화)	☀	-5/7
27(수)	☁	-1/9
28(목)	☀	3/9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 광주지방기상청

'실내금연' 하루 2.5개비 덜 피워

KDI 연구 결과

2003년부터 강화된 실내흡연 금지 조치가 내근직 흡연자들의 흡연행태에 변화를 불러와 하루 평균 2.5개비를 덜 피우게 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고려대 김범수 조교수 등은 KDI가 발간하는 '한국개발연구'에 기고한 '금연법 강화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은 실내흡연 금지조치가 강화된 2003년 이후인 2005년 4년 간 8천 17명의 샘플을 바탕으로 흡연 행태 변화를 분석했다.

이 논문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제거하고 실내흡연 금지 조치의 영향만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들이 금지 규정 강화 이전에 비해 하루 평균 2.5개비의 담배를 덜 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구분	1월 주요 선별사업	국세물류부담완화	제주/도	해/외/금/프	해/외/관/광
1월 주요 선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 신선도 향상 사업 농수산물 신선도 향상 사업 농수산물 신선도 향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물류부담완화 국세물류부담완화 국세물류부담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금/프 해/외/금/프 해/외/금/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관/광 해/외/관/광 해/외/관/광

전국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70% 밀집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 50~70% 정부 무상지원

정부보조금 1,000만원 지급

신축주택

0821-671-1199

아이엘리시아

주관자, 비로연, 세바다 각종 프로그램 행사 (100% 참여)

소요비용: 1인식, 12인식, 24인식, 48인식

대당비용: 20인식, 48인식, 100인식

0821-671-1199